



국제포양

유럽연합(EU)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스톡홀름에 설치키로

유럽연합(EU)은 늦어도 내년까지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한 유럽질병통제센터(ECDC)를 설치키로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시아 지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이에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CDC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WATT)

미 국

타이슨사 1/4분기 매출 65% 신장

미국의 최대 축산물 유통업체인 타이슨사의 매출이 조류독감, 광우병 등에 따른 수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큰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슨사에 의하면 지난 1/4분기동안 매출액이 119백만불(한화 약 1,42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백만불(약 864억원)에 비해 65% 신장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이슨의 한 관계자는 수출금지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2개월 안에 수출입이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콩, 중국, 일본 등 주요수입국들이 다시 미국산을 찾고 국내수요가 지속될 경우 타이슨사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WATT)

러시아

160g짜리 계란 기네스북에 도전

러시아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그로드노(Grodno)지방의 한 양계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계란을 생산했다고 러시아 인터팍스 뉴스가 전해왔다. 크라스노메이샤카(KPF)농장의 한 산란계로부터 생산된 이 계란은 무게가 160g으로 보통 계란(50~70g)보다 2~3

배정도 크며, 곧 기네스북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생산된 계란은 50주령된 2,000수의 계군중에서 생산된 것으로 발견당시 주인은 거위알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고 소식통은 전해왔다.(IF)

헝가리

2003년 흑서로 양계산업 타격커

EU의 정식 회원이 된 헝가리가 지난해 유럽에 불어닥친 흑서로 인해 양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농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헝가리의 닭 생산량은 2~5%가 감소했으며, 사료가격은 30% 이상 상승하면서 농가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했다. 이로 인해 생산비는 kg당 200포인트(한화 약 1,000원)로 상승전 보다 12%가까이 상승했으며, 흑서로 인한 피해액은 200억포인트(약 1천억원)이 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AgroEurop)

네덜란드

안전성 토털 정보 사이트 탄생

식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계업계에서도 닭고기와 계란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탄생하였다. 이 사이트(www.safepoultry.com)에서는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양계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는 살모넬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물론 그밖에 양계질병에 대한 설명과 백신 방법, 예방법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인터베트사에서 후원하여 운영되고 있다.(IHP)

베트남

AI 피해, 양계업계 3년내 회복 기대 어려워

베트남에서는 금년 발생한 HPAI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이를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베트남에서 AI로 살처분된 가금 수만 해도 4천만수가 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192백만달러(한화 약 2,300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료업계가 어느분야 보다 큰 타격을 입었는데 연간 4만톤을 생산하는 S회사가 사료값을 회수하지 못해 문을 닫았는가하면 베트남 시장의 40%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CP사도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AP)

필리핀

닭고기 수출 증가세

아시아국가중 유일하게 HPAI를 피해간 필리핀의 닭고기가 수입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과 싱가포르 그동안 꾸준한 수출을 해왔으며, 일본에는 연간 3만톤의 닭고기를 수출해왔다. 연간 30만톤의 닭고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60%를 수입하던 것이 중단되면서 베트남으로부터의 물량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P)